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대학보

963호 2013년 9월 9일 월요일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www.oedaehagbo.com

외대 품격 한층 높인 사이버관

사진 홍보실 제공

▲우리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줄 최첨단 교사가 들어섰다. 사이버관은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4,991규모로 학생친화적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2일 열린 준공식에는 교내외 여러 인사가 참석해 사이버관 개관을 축하했다.

외대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사이버관이 2012년 3월 착공해 약 1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달 개관했다. 10층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사이버관은 강의실, 휴식공간 부족 등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2일 열린 사이버관 준공식에는 이남주 이사장, 박철 총장을 비롯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관내 시·구의원 등 2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완공을 기념했다. 박철 총장은 "사이버관은 우리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최첨단의 쾌적한 교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곳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진정한 글로벌 교육을 받고 세계와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사이버관은 지하2층, 지상8층의 연면적 4,992평 규모로 △총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개의 강의실 △400석 규모의 대강당 △120여명을 수용하는 최첨단 화상강의실 △10여 개의 세미나실 △연구실 36개 △전자정보검색실 △피어러닝룸(Peer Learning Room) 등으로 구성됐다. 그 외 행정실, 미디어갤러리홀, 회의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교수회관과 지상·지하로 통해 강의 및 차량주차에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경영학부 △경력개발센터 △출판부가 사이버관으로 이전한다. 채명수 행정지원처장은 "사이버관 건립으로 우리학교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사이버관이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관 건립에는 무엇보다 사이버한국어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외대)의 공헌이 컸다. 건설비 전액을 사이버외대 측에서 부담한 것이다. 박흥수 사이버외대학장은 "다음 해가 사이버외대 설립 10주년인데 그동안 기초를 잘 닦아 사이버관을 완공했다"며 "사이버관이 사이버외대는 물론 학교 전체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전의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이버관은 앞으로 사이버외대와 우리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아직 완비되지 않은 내부 시설, 편의시설 입점,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일부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봉현(사범·영교 09)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강구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한국-중국 더 넓은 교류의 장 확대

우리학교 제 5회 한중 대학 총장포럼 개최

▲지난 8월 31일 우리학교 오바마홀에서 제 5회 한중 대학 총장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우리학교 박철 총장은 제 5회 한중 대학 총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중국 대학이 양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대학 총장 포럼은 1995년 한중교육교류약성서 학술교류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교육부 주관아래 매년 우리나라와 중국 대학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양국 대학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인재양성 및 인문, 사회, 이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논의를 갖고 우리나라와 중국 대학 간 학술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중 새 시대의 개막과 고등교육협력 활성화'의 주제로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장신썬(Zhang Xinsen)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으로는 개최교인 우리학교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전북대 등 32곳이, 중국대학은 간사 대학인 길림대와 북경대, 상해교통대, 복단대 등 25곳이 참석했다.

박철 총장은 "한중 양국의 공동 발전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확대를 제안한다"며 한국과 중국 간 학생교류 확대, 학점교류, 공동 학위 등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선언문인 '서울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상호 문호 개방 △양국 총장 포럼의 회원교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 교류 추진 △한중대학총장포럼의 효율적 운용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 내실화를 위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아시아를 대표할 인재 양성 및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 전했다.

참석한 한중 총장들 또한 교류와 협력 확대에 공감했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양국의 고등교육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상대국 대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 교환과 교환학생 등의 제도를 활성화 해야한다"며 "이러한 과정과 인력풀을 구축한다면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진강 길림대 총장 또한 "두 나라의 언어인재와 전문인재를 요구하는 수요가 빠르게 확대 중"이라며 "쌍방 대학간의 협력과 교류가 갈수록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 2011년부터 시작된 한국-중국-일본 3국의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국제학부, 이름에 걸맞은 뜻깊은 봉사

한국어로 된 수강편람 영어와 일본어 번역해서 제공

우리학교 국제학부에서는 이번 여름 방학동안 한국어로만 제공되던 수강편람을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했다. 이번 번역을 담당한 국제학부는 이번 신입생인 13학번 중 18명의 재외국민이 들어오는 등 외국인 비중이 특히 크다. 그동안 수강편람은 한국어로만 제공됐다. 이에 김범(국제 11) 국제학부 학생회장은 "외국어로 된 수강편람이 없어 답답함을 느꼈다"며 이번 작업에 대해 "재외국민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시에 국제화 지수 상위권인 우리학교에 일조하는 일"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이번 번역작업은 한국어와 한자 이해능력이 부족한 재외국민들을 배려해 학생회 구성원을 주축으로 시작했다. 특히 영어 번역은 국제학부 학생회에서 담당했지만 일본어 번역은 남은결(국제 13)양이 혼자 도맡았다. 이에 김범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수강편람 번역작업은 힘들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를 전했다. 현재 수강편람의 일본어 번역은 이미 완료됐으며, 영어 번역의 경우 9월 첫째주 내로 완성될 예정이다.

한편 수강편람 번역본 배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학부에서는 이번 번역본을 우리학교 홈페이지 한국어 수강편람과 가까운 자리에 게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범 국제학부 학생회장은 "학교 홈페이지 관리처가 동의하지 않아 학교 홈페이지에는 올릴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배부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수강편람 번역본 배부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영호 기자 87leeyh@hufs.ac.kr

값진 땀 한 방울로 농촌에 큰 웃음이!

이번 방중 양 배움터 학생들은 여름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을 다녀왔다. 서울배움터에서는 7월 1-10일 9박 10일간 충청도 청양과 부여 일대를, 글로벌배움터에서는 6월 24일-7월 1일 6박 7일간 충청도 제천과 경기도 이천 두 지역에서 농가에 일손을 보탰다. 농활 첫 날은 주로 마을의 가정을 방문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은 둘째 날부터 논밭에서 작물 수확, 농약 제초 등으로 시작했다. 마지막 일정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와 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농활에 참여한 김태영(통번역·스페인어 13)군은 "갖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며 "특히 농사란 많은 노력으로 일궈 낸 결과물을 수확한 것이고 그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활로 값진 인생의 교훈을 얻은 것 같다"며 뜻 깊은 봉사에서 느낀 보람을 전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지면안내

2 노천극장,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6 수강신청 A to Z
7 사이버관 알아보기
8 학내흡연에 대한 대책은?
12 이정열 배우 그리고 사회인으로의 삶이야기

외대학보
2013년 9월 9일 월요일 963호

학내 브리핑

2학기 등록 아직 안하셨다면….

2013년도 2학기 추가등록이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다. 등록 기간은 양 배움터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 모두 같으며, 등록금 고지서는 종합정보시스템이나 공지사항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학부생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국지점, 대학원생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협 전국지점으로 납부하면 된다. 등록 여부는 납부한 익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기 학교에서 건강관리 하세요

서울배움터 보건실에서 삼육서울병원과 협조해 이번 학기에도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과 및 가정의학과 무료 의료상담을 실시한다. 내과 상담은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된다. 가정의학과 상담은 격주 월요일(둘째, 넷째)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이뤄진다. 교직원 및 학생들은 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서울배움터 보건실(02-2173-2139)로 문의 가능하다.

새로운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2 ~ 15일에 서울배움터에서 신규 동아리를 모집한다. 입회신청서와 동아리 회장 추천서, 해당 분과 추천서를 작성해 동아리연합회실(학생회관 405호)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양식은 elub, cyworld.com/UCCHUFS에 있다.

튜터, 튜티 모여라!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양 배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9월 8일까지 튜터링 프로그램 참가자 40팀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튜터 학생은 이번 학기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요건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한 후 튜터링 팀(튜터 1명, 튜티 4~10명)을 구성해 이메일(ctl@hufs.ac.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또는 수신한 안내 메일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단, 튜터 학생은 튜터링을 신청하는 교과목의 학점이 A0 이상이어야 하며, 튜티 학생은 튜터가 신청한 교과목을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튜터링 종료 후 튜터 학생에게는 장학금 6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 튜터링 팀을 선정해 시상금을 수여한다.

노천극장,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간이무대 설치와 대체 공간 마련은 과제로 남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노천극장이 잔디광장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2012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시작해 공사가 진행됐던 노천극장 철거 및 잔디광장 조성공사가 여름방학 동안 완료돼 이번 학기부터 잔디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학교는 노천극장이 콘크리트가 부식돼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도서관에 소음피해를 끼친다는 것에 동의해 노천극장 철거공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비대위와 학생측은 노천극장 리모델링에 대해 협의하고 노천극장 터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 내용과 다른 공사 진행으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행정지원처에 항의 방문한 바 있다. 그 뒤 학교와 총학생회는 네 차례 면담을 가졌고, 총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해 잔디광장 조성공사를 다시 착수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노천극장 철거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홉스라이프에서 별*******의 익명을 쓴 학생은 "노천의 소음으로 인해 학업을 방해받는 학생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F*****의 익명을 쓴 학생은 이 의견에 "노천극장이 도서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노천극장 철거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총학생회가 항의방문에서 요구했던 안은 △이전 노천극장이 수용할 수 있었던 인원의 규모 유지 △학생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써의 기능 유지 △잔디광장에 학생들이 착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다. 채명수 서울배움터 행정지원처장은 "길을 좁게 낼 때 학생들이 잔디를 많이 밟는 일이 생겨 길을 넓게 내다보니 십자로 형태의 잔디광장이 생겨났다"며 "총학생회가 다른 방향의 공사 진행을 원해 공사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 및 학생수용을 할 수 있는 대체공간 마련 논의는 학교와 총학생회가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다. 조봉현(사범 · 영교 09) 총학생회장은 "잔디광장 간이무대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복지처에 문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공사 진행에 관여한 김재준 건설기획팀장은 "지금 조성된 잔디광장에서 다른 시설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체공간 마련에 대해서도 학교와 총학생회는 상이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조봉현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자치공간이 부족한 만큼 사이버외대 건물의 강당이나 10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에 대해 학생 개방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잔디광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대표 공간으로의 역할이 기대 된다.

▲잔디광장으로 바뀐 노천극장의 전경.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학교 밖의 새로운 보금자리

서울배움터 외부기숙사 확보

이번 학기부터 서울배움터에는 새로운 기숙사가 생긴다. 캠퍼스 외부에 자리한 외부기숙사는 7일부터 입실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21번지에 위치한 다성이즈빌 건물을 임대해 제공되는 이 기숙사는 △남학생 2인실 30개 △여학생 2인실 36개 △여학생 3인실 4개로 구성되며 총 135명에게 제공된다. 현재 새로운 기숙사는 8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번 학기 학생들의 입사지원을 끝마친 상태다.

현재 서울배움터 국제학사는 규모도 작은데다 외국인 학생의 비중이 높아 내국인 학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학사 운영팀은 2013년 1학기 기숙사 총 수용인원의 60%가 외국인이며, 2학기에는 최대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근 국제학사 운영팀장은 "새 기숙사가 필요하나, 교내 부지가 부족해 캠퍼스 밖의 건물을 임대해 기숙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숙사 임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외부기숙사 유치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명수 서울배움터 행정지원처장은 "외국 교환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학생들에게 제공할 기숙사가 부족해 계속해서 기숙사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배움터 안에 새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인문관 2층의 대강당을 헐고 그 자리를 새 기숙사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배움터는 새 기숙사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헐어야 할 정도로 좁다. 하지만 부지의 대부분이 평지인 만큼 용도변경이 용이해 기숙사 신축 자체에 절차는 어렵지 않다.

채명수 처장은 "이번 외부기숙사는 임시방편이며 궁극적으로는 배움터 내에 새 기숙사를 건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87leeyh@hufs.ac.kr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 미리 준비하자

양 배움터 취업박람회

서울배움터는 3일,4일 '한국외대 Job Fair'를 개최했다.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바마 홀에서 열린 이 행사는 국내외 우수기업 70여개의 참여로 진행됐다. 행사는 참가기업의 채용상담 및 현장면접을 중심이며, 부대행사는 △입사지원서 클리닉 △입사 메이크업 보조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부스에 하는 행사 외에도 취업특강과 채용설명회가 있었다. 취업특강은 애경홀에서 이틀간 현대, LG와 같은 국내 우수 기업들이 진행했다. 채용설명회는 △자소서 작성법 △기업 채용과정의 이해 △ 대기업 면접 비결을 주제로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이루어 졌다. 이은주 서울배움터 경력개발센터 대리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저학년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다"며 "많은 학생들이 이번 박람회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글로벌배움터에서도 10일 하루 동안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회관 앞 광장과 공학관에서 취업특강 및 취업박람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기업소개 △현장 인터뷰 △취업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있으며 우리 학교 재학생, 졸업생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회관 앞에서 △LG u+ △종근당 △매경 △다우기술 등의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고 공학관에서는 취업 토크콘서트, 기업별 채용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행사인 취업 토크콘서트에서는 정초신 감독, 박명하 대표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hbang@incruit.com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이영호 · 허규범 기자 87leeyh@hufs.ac.kr

외대학보 제2회 학술대전

▶ 응모 자격 : 우리학교 학부생 누구나(휴학생 포함)
▶ 공모 기간 : 9월 1일(일)부터 ~ 9월 30일(월)까지
▶ 주제 : 자유 (모집 분야에서 택1)
▶ 모집 분야
- 중 · 단편 소설: A4용지 15매 이상
- 논문 : A4용지 20매 내외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 수상작 발표 : 2013년 2학기 중 개별 연락 및 외대학보 지면
▶ 응모 방법
- 이메일 : hufspress@hanmail.net
-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401호 외대학보사 130-791

▶ 문의 사항 : 02-2173-2504

▶ 상금
- 대상 70만원 및 상패
- 최우수상 5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30만원 및 상패

▶ 유의사항
- 논문,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은 팀 제출 가능.
- 출품된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분야별 우수작끼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분야별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상 이후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 공모전 일정은 학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인 1작품 출품

▶ 심사기준 : 본지 957호 12면 '외대학보 제1회 학술대전 심사 총평' 참조

서울배움터, 쾌적한 공간으로의 변화

이번 학기 서울배움터가 달라진 모습으로 학생을 맞는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서울배움터에서는 주 진입구역 환경개선공사와 사회과학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

주 진입구역은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9월 30일에 마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문 철거 및 상징탑 건축 △안내실 철거 및 신축 △보도 확장 및 보도블럭 교체 △차도 블럭포장으로 교체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보도가 넓어지면서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몰려 발생하던 혼잡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도 옆에 있던 운동장 면적이 줄고 스탠드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두 군데의 휴식공간이 새로 자리한다. 또한 주 진입도로에 있었던 일부 은행나무가 미관상의 이유로 느티나무로 교체되었으며 안내실도 다시 지어진다.

주 진입구역 공사는 2007년 지하복합공간 공사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정책이라 그 의미가 더 깊다. 김재준 건설기획팀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녹지공간이 늘어나는 등 많이 개선된 학교 환경만큼 학생이 전보다 학교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길 바란다" 라고 이번 공사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사회과학관 화장실도 7월 25일부터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를 9월 8일 마친다. 사회과학관 화장실은 낙후된 시설에 그동안 많은 학생과 교직원의 불만이 있었다. 공사 전 사회과학관에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한 층에 나란히 있었지만 이번 학기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1, 3, 5층에 여자화장실이, 2, 4층에 남자화장실이 들어서게 됐다. 여자화장실에는 파우더룸이 신설되며 특히 1층 여자화장실에는 장애인을 위한 칸이 설치된다. 타일, 배관 등도 전부 새로 교체돼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로 바뀔 계획이다.

이번 공사들에 대해 채명수 서울배움터 행정지원처장은 "이를 통해 우리학교가 작지만 아름다운 대학, 머무르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이 됐으면 한다" 라고 전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학부생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우리학교 독문학회 학회지〈Das Stereolog〉 창간

이번학기 우리학교 독일어과 독문학회에서 학회지 <Das Stereolog>를 창간한다. <Das Stereolog>는 '문학세계를 항해하는 일지' 라는 의미다. 학부생으로만 이뤄진 독문학회의 학회지는 문학비평뿐만 아니라 토론을 각색한 희곡, 타 대학 독문학회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된다. 학회지 편집을 총괄한 임보라(서양어 · 독일어 10)양은 "학부 저학년이 중심인 만큼 학문적인 깊이가 필요한 비평문 중심으로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며 "토론시간에 오갔던 다채로운 생각을 학회지에 담아내고 저학년 학부생 특유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감각을 살려 학회지를 구성 할 것" 이라 전했다.

학회지 창간 배경은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침체된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임 양은 "대학교에서조차 인문학이나 문학이 홀대받고 있다" 며 "학회지는 문학과 인문학에 대한 학부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독일어과 교수는 "학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논문 수준의 주제를 가진 수준 높은 학회지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 고 학회지에 대해 칭찬했다.

부학회장 김예지(서양어 · 독일어 12)양은 "다른 대학교에도 독문학회는 많지만 학회지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며 "교수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학회지 내용을 점검해 주시는 등 완성도를 높여주시고 있다" 며 교수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학회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독문학회 학생들은 학회지가 학부생들의 학술적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상경계에 치중된 대학 풍토에서 인문학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아 다짐했다.

학회지 <Das Stereolog>는 9월 초에 발간돼 같은 달 둘째 주에 국제학사 2층의 독일어과 과방과 본관 3층의 학과장실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87leeyh@hufs.ac.kr

이중전공제도 세부안 확정

양 배움터에서 공부하기에 대한 각 배움터별 입장은

본분교 통폐합이 결정된 후 논의된 배움터 간 이중전공제도의 세부안이 결정됐다. 양 배움터 학생은 본분교 통폐합이 시행되는 2014학년도부터 달라진 이중전공제도를 따르게 된다.

개정된 이중전공제도는 일반이중전공과 후기이중전공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반이중전공 제도에 따라 2014년부터 입학하는 양 배움터 학생은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의 학과에서 이중전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후기이중전공은 학교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을 배려한 제도로, 희망 이중전공과 동일한 부전공 이수자에 한해 이중전공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글로벌배움터 소속 학과보다 서울배움터 소속 학과에 대한 수요가 많아 서울배움터가 과밀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학과가 설정된다.

제한학과는 양 배움터에 이미 개설돼있는 어학 관련학과를 포함한다. 어학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언어교육을 위한 기본과목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사범대학 소속 학과도 기존에 시행하던 이중전공제도와 다르지 않게 제한학과에 포함된다. 곧 신설되는 LD학부 또한 외교관을 양성한다는 학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학과로 선정됐다.

배움터 간 이중전공을 한 학생의 학위증과졸업증명서에는 1전공과 2전공이 모두 표시된다. 단 졸업증명서에는 1전공과 2전공이 각각 '학위' 와 '이중전공학위' 로 구분돼 표시된다. 우리학교의 입시성적을 유지하고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논의에 참여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번 확정안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현재 서울배움터 경영대학과 상경대학은 교수와 강의실 확충이 되지 않아 서울배움터의 학부생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배움터에서 이중전공하는 학생까지 수업을 듣게 되면 1전공자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실정이다. 조봉현(사범 · 영교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양 배움터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학습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자고 학교에 제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라고 말했다.

반면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는 이중전공제도에서 제한학과를 설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한학과를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어문학과 통번역학 · 지역학의 분야를 엄연히 다르다고 인정한 만큼 교과과정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한학과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전형근(통번역 · 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하위조항에 '이후 제한학과 설정범위는 변할 수 있다' 고 언급된 만큼 일단 이번 합의안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기숙사 식당 다시 개점

지난 6월 30일 폐점했던 (주)동원홈푸드 기숙사 식당이 2학기부터 재개점한다. 맘스터치 등 기존 기숙사 식당 자리에 있던 임대 매장도 유지된다.

동원홈푸드는 급식, 식자재유통, 외식, 유기농 등 4개 사업군을 운영하는 동원그룹의 자회사 식품 전문업체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20여 곳 대학교의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는 입찰을 통해 2012년 2월부터 계약해 교내 기숙사 식당을 운영했다.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31일까지지만 적자누적으로 6월 30일자에 폐점을 요청했다.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영업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위탁 운영을 하는 기숙사 식당은 대체로 시설투자, 인건비 등 투자되는 고정비용에 비해 식수인원은 적어 수익이 나기 어렵다. 김종오 서울배움터 후생복지과장은 "동원홈푸드에 따르면 지난 해 기숙사 식당이 1억원대의 적자를 봤다" 며 "이번 해에는 4월까지 1,000여명 정도 유지됐던 식수인원이 6월에 들어서 하루 400명도 채 안 됐다" 며 폐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교내 직영 학생식당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재명 서울배움터 총괄지원팀장은 "직영식당은 적자가 많이 생기더라도 학교 수익을 이용해 손실을 메우는 등 학생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 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가능하기에 이윤을 추구하는 외부 업체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기숙사 식당 폐점 후 학교 측에서는 방학동안 기숙사생들이 식사 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학생식당을 운영했다. 또한 현재 인문과학관에 위치한 학생식당을 기숙사 식당 자리로 옮기는 방안 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식당을 이전 또는 확장할 경우 추가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동원홈푸드 측에 남은 계약기간을 채울 것을 요청했다. 김종오 후생복지과장은 "계약기간 도중에 폐점을 하면 학교 측에서는 후속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동원홈푸드 측에서도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약기간까지는 영업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고 말했다.

동원홈푸드와의 계약만료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 이재명 총괄지원팀장은 "이번 학기동안 여러 측면을 고려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이라며 "학생식당을 옮기는 방법도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공간 및 시설 문제가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필요성도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민(서양어 · 스페인어 10) 서울배움터 기숙사 학생회장은 "학생들로서는 저렴한 학생식당이 기숙사 식당을 대체하면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을 것" 이며 "가격면이나 품질면에서 외부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학교직영인 학생식당을 이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외대학보
2013년 9월 9일 월요일 963호

글로벌배움터를 선도할 '한국학과' 신설

다문화시대에 발맞춘 한국어 · 한국문화 전문가 양성의 선도학과로 기대상승

출처 입학관리팀

▲글로벌배움터에 신설된 한국학과 Cedar Dou Seaji 교수.

우리학교는 2014년부터 한국어 ·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학과가 신설된다. 한국학과는 글로벌배움터 국제지역대학에 소속되며 본 · 분교 통합으로 사라지는 인문계 자유전공학부를 대체한다. 내국인 학생 입학정원은 총 20명으로 입학사정관 4명, 적성 10명, 정시 6명이며 외국인 학생은 정원 외로 선발된다.

현재 전 세계 318개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학과 또는 강좌를 설치할 만큼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학교 한국학과만의 특화전략으로 △국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로드맵 구성 △8년의 학 · 석 · 박사연계과정 △한국어교원 2급 전문가 양성에 맞춘 연계 교육과정 △차별화된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뤄질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학부에서 한국학을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으나 현재는 이를 수용할 학과가 없었다. 이번 한국학과 신설로 한국학센터 및 한국어문화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학과 입학생에게는 전원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입실, 해외 전문 기관에서의 실습 기회 제공 등 파격적인 장학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어 우수자에게 별도의 장학금이 제공된다.

한국학과를 졸업한 후 △해외 교육기관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문가 △한국의 발전 노하우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수하는 전문가 △해외 문화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전문가 △한류와 관련된 관광/홍보 전문가 △한류 콘텐츠를 기획 · 제작하여 전 세계에 유통시킬 수 있는 전문기획자 등으로 활동가능하다.

박선영 글로벌배움터 입학관리팀장은 "글로벌배움터는 현재 외국인 학생의 수가 서울배움터보다 적은 편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유도를 위해 가을학기(2학기)에도 입학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박 팀장은 "정치학 혹은 문화 콘텐츠 등 한국학에 대한 각 나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을 통해 한국학과가 우리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학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국학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대학생들의 열띤 토의, UN모의 총회 열려

출처 HIMUN

▲제 37차 모의 UN총회에서 사회자와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참여해 직접 모의유엔총회를 준비하는 범대학적 외국어 학술단체인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UFS Intern ational Model United Nations, 이하 HIMUN)에서 제 37차 UN모의총회를 개최했다. 8월 17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총회는 해양수산부가 특별 후원했다.

이번 총회에서 '세계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이라는 의제 아래 3가지 주제로 학생들은 13개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캐나다 △EU △콜롬비아는 '해양영토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 개발 공존에 대한 모색' 을 주제로 결의안을 작성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는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방안 확립을 위한 대안 모색' 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해 모의국제연합에 소속된 70여 명의 학생들이 토의했다.

주최기관인 HIMUN은 "해양 영토분쟁과 생태계파괴에 대해 젊은이의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의제 선정이유를 밝혔다.

선보람 HIMUN의장은 "해양은 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며 "각국 대표의 진심 어린 염려와 적극적인 자세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을 보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외대신문사 장종육 차장 외 4명 직원 선생님 정년퇴임 맞아

지난 8월31일 이종완 총괄지원팀장,서은택 교육지원팀 부장, 시설관리팀의 김영철, 박순복 선생님이 정년 퇴임했다. 본지인 외대학보와 영자신문사 디 아거스(The Argus)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외대신문사 장종육 차장 또한 30년간의 교직원 생활을 마치고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았다.

장 차장은 1984년 4월 17일 우리학교에 입사해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간 외대 신문사에 소속되어 행정업무 전반, 학보광고 유치 등을 담당하며 학내언론사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외대학보에서는 8월 21일 장 차장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 차장은 "교직원으로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이라며 "함께 했던 외대학보 기자들 및 주간교수와의 인연을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학기 본지 편집장을 지낸 문나윤(국제지역 · 중앙아시아 11)양은 "편집장 당시 장 차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아버지같은 장 차장님의 이번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장종육 차장의 후임으로 이상용 과장이 부임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우리학교 제 1호 모녀(母女)박사 탄생!

출처 외대사진관

▲8월 23일 있었던 학위수여식에서 한혜성 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어머니 전정자 씨, 딸 한혜성 씨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어머니와 딸이 모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월 23일에 졸업한 한혜성(40) 씨와 그녀의 어머니 전정자(70)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정자 씨는 1992년에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영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전 씨의 딸인 한 씨도 이번 해 '온라인 IT교육에서 학습동기가 자기 효능감과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논문으로 경영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우리학교에서 모녀가 박사과정을 거친 것은 이번 해가 처음이다.

한혜성 씨가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데는 가족의 영향이 컸다. 오빠와 어머니 모두 박사과정을 거친 집안 환경 덕택이다. 그녀는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며 "더욱이 어머니와 같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전정자 씨는 "딸이 제 뒤를 이어 박사학위를 받아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딸이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박사과정 후 글로벌배움터에서 10년 가까이 영어과 강사로 활동한 전정자 씨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나아가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코스모스 졸업식,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사진 허규범 기자

8월 23일 우리학교 양 배움터에서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비오는 날씨에도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학위수여식에 참여한 정상원(공과 · 컴퓨터 05)군은 "졸업도 기쁘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좋은 추억거리를 쌓지 못한 것이 아쉬움에 남는다"며 시원섭섭함 마음을 드러냈다. 위 사진에서는 글로벌배움터 세향관에서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과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그녀의 미소만큼 밝고 희망찬 앞날을 기대한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지구촌을 읽다 – ①

이집트의 쿠데타와 아랍의 봄

서정민 교수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던 2011년 이집트 혁명 시위대

▲군부의 복귀를 지지하는 2013년 반이슬람정권 시위

아랍의 민주화 물결의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 2011년 초 아랍의 봄을 대표하는 이집트의 시민혁명이 안개 속으로 향하고 있다. 이집트 최초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7월 3일 축출됐다. 그것도 혁명 당시 대중이 타도를 외쳤던 군부에 의해서다. 60년 권력에서 물러난 것 같았던 군부가 1년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무참히 진압했다. 8월 14일 1,300여명이 시위 중 사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과 야권이 군부의 쿠데타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무슬림형제단이 이끄는 이슬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집결된 결과다. 정치 및 사회의 이슬람화, 경제 회복의 실패 등에 대한 실망이 반정부 운동으로 이어졌다. 6월 30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의 시위대가 이슬람 세력의 퇴진을 외쳤다. 이후 4일 만에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은 군부에 의해 집무실에서 사실상 '구금 및 연행'됐다. 민주화의 걸음마도 떼기 전에 다시 좌초하면서 이집트는 혼란으로 접어들게 됐다.

혁명으로 포장된 쿠데타

7월 3일 밤 이집트 국영 TV에 중대 발표가 생중계됐다. 압둘 파타흐 알-시시 국방장관이 헌법의 효력정지와 임시대통령 임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방송에는 군부 외에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했다.

국방장관에 이어 이집트 최고 이슬람 종교기관 알-아즈하르 수장 아흐마드 알-타입, 이집트 콥틱 기독교의 교황 타와드로스 2세, 그리고 범야권 구국전선의 의장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지를 선언했다. 군부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대국민 담화에 등장한 헌법재판소 소장 아들리 알-만수르 임시대통령은 "2011년 혁명을 완성하는 조치"라며 군부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군부의 쿠데타는 이처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장됐다. 무르시 지지자와 반정부 세력의 충돌로 사상자가 증가하면서 '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난 1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반정부 운동을 배후에서 조용히 부채질 해왔다. D-데이는 7월 1일이었다. 수백만 반정부 시위대가 집결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군부는 "무르시 대통령이 대중의 요구에 48시간 이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부 자체의 '로드맵(roadmap)'을 발동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48시간이 지난 7월 3일 물리적으로 민선대통령을 퇴위시켰다.

이슬람주의 보다는 세속주의 군부

60년 군부독재에 고통 받던 이집트인들의 상당수는 군부의 복귀를 환영했고, 유혈진압에도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오랜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문화적으로도 아랍인들은 물리력에 한없이 약하다. 2011년 이전 중동에서 정권교체가 거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가 유목민의 전통이다.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생명이다.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남성은 무장을 해야 했다. 따라서 중동의 지배가문은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집안이었다. 이 가문의 남자 어른은 군대의 사령관 같은 권위를 가진다. 정치권력은 물론 물리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 권력도 차지하게 된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왕정국가들은 가문통치가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는 '나흐얀,' 두바이는 '마크툼'가문, 카타르는 '싸니' 가문, 쿠웨이트는 '사바흐' 가문이 왕위는 물론 주요 정부 요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문은 경제권도 사실상 차지하고 있다. 공화정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군부 쿠데타 세력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집권한다. 선거는 있지만 이름뿐이다. 대표적인 예가 1969년 27세의 나이로 쿠데타에 성공해 41년 동안 통치했던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다.

물리력을 중시한다는 것은 '강력한 물리력'을 통한 정치로 연결된다. 군부 출신의 대통령은 자주 군복을 입고 대국민 연설을 행했다. 군은 물론 군 출신이 대거 포진한 정보부 그리고 경찰까지 최고 권력을 호위하는 세력으로 만들었다.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전 자치정부 수반, 사담 후세인 등이 군복을 자주 입고 빈 권총집을 차고 다녔던 것도 물리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걸프 왕정에서도 왕세자나 왕세제가 되는 정규코스는 영국의 사관학교를 이수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거치는 것이다. 왕이 된 이후에도 정보기관과 군부는 자신의 직속 명령체계 하에 둔다. 더불어 '공화국수비대' 혹은 '왕정수비대' 등 친위부대를 별도로 두고 권좌를 지키는 물리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의 정치 및 경제는 물리력을 기반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집트도 예외는 아니다. 물리력,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까지 갖춘 군부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신뢰까지 받고있다.

세속주의 군부 vs. 이슬람 세력 갈등 재점화

이집트를 포함한 대부분 중동 공화정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속주의 군부와 이슬람세력 간의 대결구도가 존재해 왔다. 2011년 아랍의 봄은 군부의 퇴진과 이슬람세력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역전되던 이 대결구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하는 것이 이번 이집트의 쿠데타 사태이다. 따라서 향후 이집트와 중동 전역에 세속주의 군부와 이슬람 세력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랍의 봄 이후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이 현재의 군부 움직임에 대해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지하에서 투쟁을 해온 세력이다. 2011년 군부의 퇴진 이후 제도권 내에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하지만 1,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꺾으려는 군부를 용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슬람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 갈등과 충돌이 향후 이집트 및 아랍 정치권의 화두가 될 것이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스펙이 아닌 나만의 스토리를 찾아 떠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처음 케언즈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난다. 23년간 부모님의 비호를 받고 성장한 청년이 전역 후 밑도 끝도 없이 편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 외국에 나왔다. 잘 곳 하나 정하지 않은 채, 친척 하나, 친구 하나 없었기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 청할 곳조차 없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에 겸손해져야 했고 일일이 낮은 자세로 알아가야 했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일 년간 배운 것은 돈, 영어보다 이런 것들이다.

첫째, 세계 속에서의 우리나라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한국 사람의 모습들과 더불어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사고와 관념들도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 선배에 대한 예우, 연장자에 대한 예의, 효도, 성문화, 사회적 소수자들….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삶의 진리처럼 학습해온 관념들에 대한 직접적인 회의로 이어졌고, 이는 나만의 생각들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것은 애국심에서 발현된 국수주의도 아니고 합리적인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비롯한 사대주의도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말이다.

둘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소한 것부터 알아 갈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의 시작은 나를 객관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 타국에 가서 부모님께 손 한번 벌리지 않고 내가 구한 일자리로 돈을 벌어 집을 구하고 먹을 것을 내가 사서 해먹는 모습. 주머니에 있는 십 달러로 옷을 사야 할 지, 군것질을 해야 할지, 저축을 해서 여행을 갈지와 같은 사소한 고민을 하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의 시작이다. 태어나 자라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 낳아주신 부모님, 사회 속에서의 내 모습을 잊고 이국 땅에 내 이름 석자 하나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나의 모습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가게 된다.

셋째,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 워킹홀리데이 혹은 외국에 나와 생활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꼽고 싶은 부분이다. 매일 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짊어지고 오셨던 무게의 절반의 절반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넓고 단단했던 것인지 가늠이 됐다.

네 번째, 영어를 수단으로 만난 수많은 인연들과 경험들. 워킹홀리데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영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어를 할 수 있기에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과 겪었던 경험들은 내게 영어가 늘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에 충분하다. 호주를 가지 않고 대학 생활을 1년 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인연들,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이야기들. 세상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준, 여태까지도 그리고도 앞으로도 추억되고 만나게 될 사람들.

정리한대로 나는 11개월간의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서 위와 같은 것들을 얻었다. 위에 나열한 것들이 내겐 돈, 영어보다 소중한 '나만의 무언가'가 된 것에 기쁘다. 성공한 워킹 홀리데이? 성공한 외국 유학생활? 그런 건 없다. 돈을 벌려고 갔으면 벌어오고, 영어를 하러 갔으면 영어를 하고 즐기러 갔으면 즐겨라. 스펙이 아닌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러 떠나라.

이승진 (중국 · 중국 09)

외대학보
2013년 9월 9일 월요일 963호

나는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싶다

등록금 내고도 내 맘대로 못하는 수강신청, 그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취업포털 사이트인 커리어가 대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 63%가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61%가 수강신청에 실패해 원하지 않은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대학교에 이제 막 입학해 딱 2번 수강신청'대란'을 겪어본 기자도 이 설문조사를 보고 매우 공감했다. 다운되기 일쑤요 심지어 튕기기까지 한다. 다시 로그인하면 수강신청은 이미 끝!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기 위해 외대학보가 기획으로 나섰다.

◆ 흔한 대학생들의 수강신청 날

우리학교 A군은 수강신청 당일 오전 9시 30분 집 근처 피시방으로 향했다. 10시부터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평소라면 게임하는 유저들로 가득했을 피시방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마다 학교 홈페이지 창을 켜놓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어제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과목들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 9시 59분이다. A군은 마우스로 '수강신청하기'버튼을 '광클'하기 시작했다. 아차하는 순간, 새로고침 창이 뜨고 1분 후 재접속을 했더니 이미 그가 원했던 강의는 더 이상 수강가능목록에 없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번 수강신청을 기약하며 하릴없이 SNS에 들어갔다. A군의 타임라인에는 수강신청에 '망했다'는 글과 '성공했다'는 글들이 마구 올라오기 시작한다.

◆ 정보지원처 "서버문제보다는 통신문제"

우리학교에서 A군과 비슷한 사례를 가진 학생은 한두 명이 아니다. 현예진(통번역·마인어 13)양도 "제시간에 수강신청버튼을 눌렀는데 새로고침 창이 떠서 수강신청에 실패해 원하지 않는 수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주영(통번역·영어 08)군은 "수강신청 시작 10분 전부터 로그인시도를 했는데 로그인이 아예 처음부터 되질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위 사례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학교의 수강신청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강신청 시스템은 로그인부터 웹서버, 세션,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의 총 네 단계를 거친다. 가장 먼저 유저는 각 개인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한다. 다음으로 4개의 나눠진 웹서버에 나눠 들어가 수강신청 서버가 열릴 때까지 대기한다. 그리고 수강신청 정각이 되면 접속 순서대로 DB까지 연결하는 통로인 세션을 거친다. 그 후 DB에 도착하면 그때 비로소 수강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DB는 그 크기가 한정돼 모든 접속자를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유저는 이미 접속한 유저가 일처리를 모두 끝내고 로그아웃할 때까지 세션에서 기다려야 한다. 혹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세션에서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날 경우 지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학교 정보지원처 IT개발팀은 새로고침 창이 뜨거나 튕기는 등의 접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서버문제보다는 통신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랜선이 엉켜있다거나 유선인터넷이 아닌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등)을 사용했을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별 통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의 접속장애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일일이 규명할 수 없어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것이다.

혹은 유지시간 초과도 하나의 경우다. 유지시간이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 로그아웃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20분을 말한다.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던 학생이 유지시간을 넘겨 다시 로그인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유저들보다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DB 안의 접속자들이 강의 신청을 먼저 선점해 수강신청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타 대학교의 수강신청 대란 대처방법

수강신청을 하는 날은 비단 우리학교 학생들만의 고난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한 번 쯤 겪어봤을 수강신청 대란. 그렇다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색다른 대책을 내놓았을까?

먼저 건국대학교에서는 얼마 전 '번호표 대기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수강신청 당시 원하는 과목 신청에 실패했을 경우 해당 과목에 대기 번호표를 받는다. 그 후 다른 학생이 그 과목을 빠져나갈 때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번호표 대기제도'는 표면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대기표를 받은 학생들을 답답하게 한다. 왜냐하면 1분, 1초가 중요한 수강신청 상황에서 대기하는 학생은 해당 강의 수강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 와중에 거기에 매달리느라 다른 수강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기표를 받은 학생이 이미 수강가능 학점을 다 채웠거나 그 강의 시간에 다른 수강으로 채우면 문자가 다음 대기인에게 넘어가게 돼 수강신청 기간이 너무 길어져 학생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산대학교는 2012년 3월 학사행정용 DB 서버를 교체하고 서버팜 네트워크를 고속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3만 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신청을 가능하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했다고 한다. 부산대학교에서 수강신청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전산원측은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선 이후 접속장애를 겪었다는 불만이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해 입학한 허효범(나노과학기술·나노소재공학과 13)군은 "수강신청을 할 때 몇 초의 지연시간 말고는 새로고침 창이 뜨거나 로그아웃되는 접속장애는 없었다"며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수강신청 경매제'를 내놓았다. '수강신청 경매제'는 학생에게 수강목록을 살 수 있는 가상 포인트를 지급한 후에 원하는 강좌에 포인트를 걸어 최고 입찰자 순으로 수강정원을 채우는 형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는 있다. 가령 무계획적으로 인기강의만 골라 학생은 강의 당 높은 포인트를 걸어 남는 포인트가 모자라 필수교양이나 심지어 전공과목까지 못 듣게 될 수도 있다. 더 심각하게는 포인트 관리를 못해 학점이 모자라 졸업이 어려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현재 이 제도는 몇몇 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 우리학교가 수강신청 대란에 대처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내놓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우리학교에서는 현재 각 학년마다 다른 날에 수강신청을 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한 날에 수강신청을 해 서버 과부화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DB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한정돼있기에 이는 수강신청 대란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은 장바구니제도다. 2011년부터 도입한 이 제도는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훨씬 수월하게 해준다. 많게는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돼있는 과부화가 걸린 사이트에서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강의를 클릭 한 번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면 더 나은 수강신청시스템을 위해 학교에서 앞으로 내놓고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학교 정보지원처 IT개발팀에서는 동시접속자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DB에 과부화가 걸려 접속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강신청 접속자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도 '로그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타 대학교에서 수강신청 대란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학교에 도입 가능할지 늘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 서버의 세션과 DB는 수강신청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도 사용된다. 하지만 서버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주로 수강신청이다. 따라서 "부산대학교처럼 DB서버를 크게 한다거나 세션 업그레이드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IT개발팀은 밝혔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수강신청에 대한 진실! 우리학교 IT개발팀에 물어본다.

Q. 학교컴퓨터로 하면 수강신청에 100% 성공한다는 속설이 있다. 사실인가?

A. 학교컴퓨터로 수강신청을 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에 비해 거쳐야 하는 게이트웨이가 적어 빠르긴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70m를 뛰는 것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뛰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하는 것이 빠르다고 확실히 답하기는 어렵다. 즉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그 PC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학교 컴퓨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Q. 수강신청버튼을 눌렀는데 모래시계 아이콘이 뜨면서 지연시간이 있다면?

A. 성질 급한 학생은 그 상태에서 새로고침 버튼을 계속 누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미 접속돼있는 학생이 나갈 때까지 접속 중인 학생들은 세션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만약 거기서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순번제일 뒤로 밀려나거나 다시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연시간이 있다면 거기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수강신청 전에는 수강편람을 꼭 읽어보는게 필요하다.

외국어연수평가원

교육생 모집

※ 재학생 특전
• 학점인정(실용외국어-필수) • 외국어인증(2007학번부터)
• 영어졸업인증(2006학번까지) •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외국어인증 (영어) 대체

<교육언어>

언 어	단 계
영 어	1~6단계
중국어	중급
일본어	초급
독일어	초급
스페인어	초급,고급
프랑스어	초급
러시아어	초급
베트남어	초급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급
아랍어	초급

※ 참고
• 초급 : 3개월 이내 • 중급 : 6개월~1년이내
• 고급 : 1년 이상학습자

http://flttc.hufs.ac.kr

▶신청 : 2013. 9. 2(월)~선착순
▶교육 : 2013. 10. 14(월)~12.20(금)
▶수업 : 19:40~21:30(월, 화, 목, 금 80시간)
▶문의사항 : 02-2173-2524/252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사이버관의 명소를 더블클릭하다

8층 사이버대 행정실, 세미나실(2), 스튜디오, 준비실, 대회의실
7층 연구실(대2, 소33), 라운지
6층 사이버대 행정실, 학부사무실(7), 강의실(4),회의실, 자료실, 라운지
5층 경영대 행정실, 강의실(2), 세미나실(3), 컴퓨터 실습실, 라운지
4층 강의실(11), 라운지
3층 소강당(120석), 강의실(10), 라운지
2층 Peer Learning Room, 전자도서과
1층 대강당(404석), 편의시설, 라운지
지하 1층 주차장(64대), 창고, 출판부 서고, 도서관 서고
지하 2층 기계, 전기실, 주차장(56대), 창고

"새 건물과 정원이 정말 멋져요! 이제야 진짜 대학교 교정 같아요" 개강 날, 학교 정문을 들어선 박설린(일본 · 일본 13) 양이 놀라며 말했다. 여름방학 전에 보았던 학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환경 때문이었다. 비단 박 양 뿐만 아니라 새 학기를 맞이하는 외대인 모두가 새로워진 교정의 모습에 깜짝 놀랐을 것이다. 갖가지 많은 변화 속에서도 단연 그 변화의 주인공은 '사이버관' 일 것이다.

정문 왼쪽에 위치한 사이버관은 지난 해 2월부터 착공해 이번 해 8월 9일 준공된 최첨단 교사다. 건설비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 전액 지원했다. 설계는 아름건축종합사무소에서, 건설은 쌍용건설에서 도맡아 약 17개월 만에 지하 2층에서 지하 8층, 연면적 4,991평에 이르는 최신식 건물을 완공했다. 사이버관은 학교부지의 고저차를 활용해 설계됐기 때문에 외부 계단을 통해 1층에서 3층까지 바로 진입이 가능하며, 전층에 LED조명을 설치해 고효율의 조명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이버관 내에는 △400여명을 수용하는 대강당 △120여명을 수용하는 화상 강의실 △전자정보검색실 △1,500여명이 동시에 강의를 받을 수 있는 27개의 강의실 △각 층의 휴게시설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관 내에는 제각각의 특장점이 돋보이는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눈여겨 이용해볼만한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본지는 건설기획팀의 협조로 사이버관의 핵심 공간 몇 곳을 선정해봤다. 기자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김재준 서울배움터 건설기획팀장과 함께 사이버관 탐방에 나섰다. 아직 완비되지 않은 일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지원처 직원들과 인부들이 끊임없이 사이버관 내부를 살피며 손보고 있었다.

사이버관 시설 소개를 마치며 김재준 팀장은 "개강까지 공사를 마치느라 직원들은 물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며 "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서 설계하고 건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관 건축을 통해 강의실 사용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등 이번 기회에 시설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많이 돼 뿌듯하다" 고 밝혔다.

글 이은결 86leg@hufs.ac.kr
사진 신민지 86hufspress@hufs.ac.kr

▲1층과 2층에 걸쳐 자리한 404석 규모의 대강당이다. 조명,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이버관 대강당은, 3~400명 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 지하캠퍼스의 오바마홀 못지않게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2층에 위치한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열람실 및 자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6인용의 책상에는 스탠드조명이 2개씩 설치돼있어 면학분위기를 더욱 조성한다.

▲1층과 2층이 주로 학생들을 위한 휴식 및 편의공간이었다면, 3층부터는 주로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간들이 있다. 이곳은 3층과 4층에 걸쳐 있는 소강당으로, 120명을 수용하는 계단식 강의실이다. 수업은 물론 행사시에도 사용될 수 있다.

▲2층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Peer Learning Room'이다. 오른편은 전자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열람실 및 자습공간으로 이용되며, 정보검색 등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왼편에는 10대 이상의 컴퓨터가 구비돼있다. 홀 앞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다.

▲5층에 위치한 세미나실이다. 칸막이 책상이 설치돼있어 학생들은 독서실 및 자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5층에는 스터디룸, 컴퓨터실습실, 학술정보실 · 도서관도 함께 있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대학보
2013년 9월 9일 월요일 963호

금연문화의 확대, 학내흡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우리학교 앞 휘경로 금연거리로 지정

1일부터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앞 휘경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휘경로는 우리학교 정문 앞부터 외대앞역까지의 양측 보도와 지하차도 위 안전지대이다. 동대문구청은 9월부터 네 달간 홍보 ·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 휘경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휘경로 금연거리 지정은 우리학교가 대학가 최초이며 이어 경희대학교 앞 경희대로도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동대문구청 보건정책과 정남수 총괄담당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휘경로는 길이 좁고 유동인구가 하루 3만 5000명에 달해 소수가 담배를 피워도 간접 흡연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정책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휘경로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동대문구청은 7월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우리학교 주변 곳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2293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서 81.77%에 달하는 1875명이 휘경로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금연거리 지정이 능사는 아니다

…전국의 주요 대형 건물과 공중 이용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뒤 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곳을 찾아 건물 근처 보도로 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접흡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건물은 흡연실을 반드시 만들어 간접흡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2013년 6월 28일 서울경제

이번 정책은 금연을 장려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시행됐다. 하지만 오히려 학내 흡연을 부추기고 학교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흡연자들이 휘경로를 피해 학내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는 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흡연구역도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입구 근처에 있어 풍선효과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배움터의 암묵적인 흡연구역은 인문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 사이, 사회과학관, 국제학사, 본관 입구 근처 등이다.

그러나 이 구역들이 공식적인 흡연구역은 아니다. 특히 인문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 사이의 공간은 많은 학생들이 꽁초를 아무데나 버려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재떨이를 놓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이 곳을 자연스럽게 흡연구역으로 인식하게 됐다. 지금은 이 재떨이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학내 흡연문제, 학생들의 생각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학내 흡연 문제에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흡연자들이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는 인문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 사이(36.32%), 사회과학관 중앙현관(20.28%) 등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기타(32.86%), 인문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 사이(30.56%), 사회과학관 중앙현관(14.45%) 순으로 기타 답변이 가장 많았다. 기타 답변 중에는 인문과학관과 사회과학관 5,6층 등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라는 답변도 상당 부분 차지했다.

흡연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에 응한 952명 중 93.8%에 달하는 893명이 흡연공간 설치에 찬성했다. 흡연공간 설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학생도 흡연자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학생 197명 중 160명(81.22%), 비흡연자의 경우 308명 중 87.34%인 269명에 달했다.

학내 논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선거 당시 학내 흡연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 사이에 흡연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동안 이 공약을 추진하면서 총학생회는 흡연자를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안과 옥상을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학교 측 역시 서울배움터 내에 흡연공간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제시한 두 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옥상 개방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다. 옥상을 24시간 개방하면 너무 위험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옥상까지 올라갈 흡연자가 몇 명이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스 설치의 안도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 우선 서울배움터가 좁다 보니 많은 수의 흡연부스를 설치하기 어려워 한두개의 부스 설치로는 흡연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흡연부스처럼 폐쇄적 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도 문제가 됐다. 게다가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학생만이 아닌데 우리나라 정서상 교직원과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학교와 총학생회는 지금까지의 논의 끝에 무조건 실내금연을 실시한다는 점과 개방돼 있는 형태의 흡연 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찾은 상태다.

앞으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흡연자들에게 흡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은 예정이다. 안경호 서울배움터 학생감동팀장은 "비흡연자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흡연자가 흡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소정(상경 · 국통 10) 부총학생회장 또한 "처음 공약을 만들었을 때처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풍선효과 :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현상.
–출처: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2004년)

▲ 우리학교 앞 휘경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9월부터 본격적인 홍보·계도 활동이 시작된다. 8월 29일 휘경로에서 계도 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1.(흡연자의 경우) 주로 흡연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 항	답 변
인문관과 교수학습개발원 사이(후문)	36.32%
사회과학관 중앙현관 앞	20.28%
본관과 인문관 사이	8.02%
도서관 앞	7.55%
국제학사와 법학관 사이 벤치	7.08%
법학관과 본관 사이	6.6%
도서관 뒤쪽	3.3%
대학원 앞 벤치	0.47%
기타	10.38%

(복수 응답 가능)

2.(비흡연자의 경우) 주로 담배연기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 항	답 변
인문관과 교수학습개발원 사이(후문)	30.56%
사회과학관 중앙현관 앞	14.45%
도서관 앞	9.08%
본관과 인문관 사이	7.67%
법학관과 본관 사이	2.56%
국제학사와 법학관 사이 벤치	2.05%
도서관 뒤쪽	0.51%
대학원 앞 벤치	0.26%
기타	32.86%

(복수 응답 가능)

〈실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일시: 5/31~6/6 대상: 서울배움터 전체 재학생〉

운동章 〈글 장〉 임수진 기자

EPL 컨트롤?

조세 무링요 감독이 6년 만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돌아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몸담았던 첼시 FC와의 재결합이다. 무링요 감독은 당시 첼시를 이끌고 프리미어리그 2회 우승, FA컵, 리그 컵 우승 등 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무링요 감독의 복귀 첫 경기에 첼시의 홈 구장인 스텐포드 브릿지에 모인 4만여명의 관중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그의 응원가를 불러줬다. 그런데 무링요 감독의 복귀가 반가운 것은 스포츠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의 도발적인 언사 때문이다.

▲조세 무링요 감독

무링요 감독은 그 명성에 걸맞게 복귀 직후부터 온갖 어록들을 쏟아내고 있다. 첼시로 복귀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로 첼시 팬을 감동시키기도 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는 "'동일 리그의 팀에게 선수를 팔지 않는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영입 대상이었던 루니와 모예스 감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또 토트넘 핫스퍼스와 메디컬 테스트까지 진행했던 윌리안과 계약을 하고 나서는 "메디컬은 비밀로 진행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로 토트넘 팬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힙합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일명 '컨트롤 대란'이다. 래퍼들이 컨트롤 비트에 맞춰 다른 래퍼들, 혹은 힙합계를 디스하는 곡을 연달아 발표했다. 폭로전, 욕설 등으로 일부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며 우려를 사긴 했지만 이번 디스전을 통해 더 많은 대중이 힙합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무링요 감독의 도발적인 발언들도 '컨트롤 대란'과 마찬가지로 마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무링요 감독과 그의 언행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의 자극적인 발언들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시즌 첼시의 행보에, 프리미어 리그 판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어쩌면 무링요야말로 프리미어 리그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깨너머 듣는 교양 신혜련 (교양학부, 오페라와 뮤지컬 과목 담당강사)

'오페라'와 '뮤지컬'은 어떻게 다를까?

지하철 안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대화를 하고 계셨다. "오늘 본 오페라 정말 재미있었지? 게다가 제목도 너무 멋있어. 오페라의 유령!" 아뿔싸!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가 아니라 뮤지컬인데! 그러면 <레미제라블>은 오페라인가, 아니면 뮤지컬인가? 비슷한 듯 다른 오페라와 뮤지컬, 어떻게 다른지 한 번 간략히 알아보자.

1) 연극과 음악: 뮤지컬은 연극적인 요소가, 오페라는 음악적인 요소가 더 많다. 따라서 뮤지컬 공연하는 사람을 '뮤지컬배우', 오페라를 공연하는 사람을 '오페라가수'라고 한다. 이들의 노래들을 오페라에서는 아리아(aria), 뮤지컬에서는 넘버(number)라고 지칭한다.

2) 마이크의 사용: 뮤지컬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오페라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페라는 정통발성법으로 훈련된 성악가들이 노래하기에 마이크 없이도 구석구석까지 대중들에게 소리가 전달된다. 반면, 대중적인 창법의 뮤지컬배우는 마이크를 통해 노래하여 관객들에게 전달하기에 비교적 정확한 가사전달이 쉽다.

3) 오케스트라 반주: 오페라는 항상 오케스트라단원들과 함께 공연한다. 뮤지컬은 주로 녹음된 음악(MR)을 틀고 공연한다. 간혹 오페라처럼 극 전체를 노래로만 이어가는 송 스루 뮤지컬(song-through musical)들은 오케스트라반주로 공연하는 경우도 있다. 오케스트라단원들은 무대 바로 아래의 오케스트라 피트(orchestra pit)에서 먼지를 먹어가며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연주한다. 그들에게 따뜻한 박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4) 춤: 춤은 오페라보다는 뮤지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조명과 함께 드럼과 전자기타 등 대중적인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뮤지컬배우들의 다이내믹한 춤은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5) 역사와 극의 소재: 오페라는 1600년부터 현재까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뮤지컬은 오페라에서 파생된 장르이기 때문에 15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극의 소재도 문학작품과 역사적 사건, 신화, 전설 등을 다루는 오페라에 비해 뮤지컬은 문학작품도 다루지만 대부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한다. <카르멘>, <피가로의 결혼> 등은 오페라의 대표작품들이고, <사운드 오브 뮤직>, <레미제라블>등은 뮤지컬의 대표작품들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관람하려는 오페라나 뮤지컬공연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관계 등을 미리 알고 보면 훨씬 쉽고 재미있다. 또한 대표곡은 미디어매체를 통해 여러번 들어보고 가면 공연 중에 그 노래가 나올 때 무척 반갑고 감동도 배가 될 것이다. 이번 가을엔 가슴 벅찬 감동의 오페라나 뮤지컬 한 편으로 박동하는 내 심장소리를 느껴보면 어떨까?

'서양의 대한민국' 폴란드의 문학을 만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학을 '한(恨)의 문학'이라고 표현한다. 굴곡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이 문학에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의 문학'이라고 불릴만한 문학이 지구 반대편에 또 있다. 바로 폴란드 문학이다. 단재 신채호는 우리나라를 '동방의 폴란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 얼마나 닮아있을까?

멀지만 가까운 우리나라와 폴란드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굴곡진 역사를 지니게 된 배경에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다. 강국 사이에 끼어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고, 폴란드도 유럽의 중앙에 자리잡아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린 바 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또 다른 공통점은 비슷한 시기에 전쟁 없이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원래 폴란드, 백러시아(서부 지역),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등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동부 유럽의 강국이었다. 그러나 1795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3국의 분할통치를 받게 되면서 나라를 잃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펼쳤다. 정병권 폴란드어과 교수(이하 정 교수)는 "한 민족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독립 운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훌륭한 전통과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성은 폴란드어과 교수(이하 최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철저히 대립하던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이 서로 대립하는 비극을 겪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짚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 전쟁 없이 나라를 잃은 점, 독립 운동의 전개, 냉전시대 같은 민족의 반목 등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폴란드 문학을 읽으면 한국도 보인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양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은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공유하고 있는 이 유사성들은 문학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두 나라의 문학사에는 외세의 침략에 반발하는 '저항시'와 한 민족 간의 반목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존재한다. 그 예로 폴란드의 시인 바친스키(Kr. K. Baczyński: 1921~1944)의 시와 우리나라 시인 윤동주(1917~1945)의 시를 들었다. 두 시인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지만 살아온 인생은 비슷하다. 2차 대전 당시 20대의 청년들이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그 의지를 작품 속에 담아냈다는 것과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로 전쟁터, 혹은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 그렇다.

두 시인의 작품 속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조국애와 자기희생, 민족의 독립에 대한 애틋한 염원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또한 최 교수는 두 나라의 문학이 서로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폴란드의 작가 바츠와프 셰로셰프스키(Wacław Sieroszewski)는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에 쓴 책 「한국, 극동의 열쇠(Korea, klucz Dalekiego Wschodu)」에서 "오, 한국이여, 조용한 아침의 나라여! 너의 운명은 불과 얼마 전 나의 조국 폴란드의 운명과 너무나 비슷하도다"라고 썼다. 우리나라에서도 김광균 시인이 대표작 「추일서정」에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즈러진 토룬 시의 가을하늘을 생각케 한다"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지리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만은 가까웠다.

조국에 대한 사랑, 낭만주의와 실증주의

폴란드가 분할점령을 당한 19세기는 폴란드 민족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폴란드 문학은 위기의 그 때에 세계의 문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 전반을 대표하는 문예사조가 낭만주의다.

낭만주의 문학의 특징은 잃어버린 고향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막연하게 조국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그 시대를 보여주며 사람들이 식민지배로 인해 잃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낭만주의는 조국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고 있냐고 묻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서 "낭만주의 문학이 폴란드 문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폴란드에서는 11월 봉기와 1월 봉기라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는데 이 봉기의 정신적인 토대가 바로 낭만주의 문학이었죠"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다른 나라의 낭만주의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폴란드 낭만주의 문학에는 외세의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애국주의적 성향과 역동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폴란드 민족 최대의 위기였던 이 분할점령 시기, 즉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세 시인-미츠키에비츠(A. Mickiewicz: 1798-1855), 스워바츠키(J. Słowacki: 1809-1849), 크라신스키(Z. Krasiński: 1812-1859)들의 시는 폴란드 민족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주체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도 폴란드 사람들은 이 세 시인을 민족시인(Wieszcz narodowy)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폴란드 문학계에는 실증주의 문학이 등장한다. 정 교수는 "낭만주의가 가슴으로 쓰는 감성적 문학이라면 실증주의는 머리로 쓰는 이성적인 문학입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기도 소리를 압도했다고 할 수 있죠"라는 말로 낭만주의와 실증주의의 차이를 표현했다. 정 교수는 "낭만주의가 맹목적인 애국을 노래했다면 실증주의는 더 논리적인 방법으로 애국을 논한다"며 "감성적인 방법에서 이성적인 방법으로 옮겨간 거죠. 애국하는 법이 바뀌면서 문예사조도 변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실증주의 문학은 19세기 후반 폴란드가 산업 사회로 옮겨갈 때 폴란드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회적 풍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실증주의 문학에서는 낭만주의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노동의 가치와 근면을 이야기한다.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낭만주의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한껏 미화시켰던 농촌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폴란드 농촌을 그려내기도 한다. 낭만주의가 귀족만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반면 실증주의 문학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농민, 노동자들, 유대인들이기도 하다. 최 교수는 폴란드가 이렇게 낭만주의와 실증주의라는 서로 다른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였다는 점에서 폴란드 문학의 예술성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서 문화적인 교량의 역할을 해왔던 나라, 슬라브의 뿌리를 가졌지만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 낭만주의와 실증주의의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굳건히 지켜온 나라로 폴란드 문화와 문학은 바로 이런 이중적인 요소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담금질되며 폴란드 문학의 예술성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을 얻었다.

언어에 대한 사랑, 문학에 대한 사랑

어려운 시기를 문학으로 버텨낸 만큼 폴란드 사람들의 문학 사랑은 남다르다. 민족 시인인 미츠키에비츠의 경우 폴란드 어느 도시에 가나 그의 동상이 있다. 심지어 소도시에도, 조그마한 마을에도 그의 동상이나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꼭 있다고 한다. 정 교수는 "폴란드 사람이라면 미츠키에비츠는 누구나 알고 존경한다" 고 설명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동상이나 거리가 있는 시인은 미츠키에비츠 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폴란드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시인들의 동상이나 그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는 시를 읽는 모습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고 있을 정도다. 최 교수는 "사실 폴란드에서만큼 시인과 작가들이 존경받고 문학과 역사가 하나로 용해돼 있는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그래서인지 폴란드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은 작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작가 수도 많다.

이런 폴란드의 유별난 문학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폴란드 대학에서는 폴란드 문학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수도 많고 사회적인 대우도 좋다. 폴란드어문학부에 교수만 200여명이 넘는 대학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게다가 폴란드인은 폴란드 문학 뿐 아니라 폴란드어에 대한 사랑도 정말 남다르다. 정 교수는 "1년에 한 두번은 폴란드에 꼭 가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사전이 나와있어요. 12권짜리 국어사전은 수시로 나오고 50권으로 된 국어사전도 있으니 자기 언어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감탄했다.

문학의 힘이란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식민지배라는 민족의 위기를 문학으로 표현하고 극복해나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준 문학의 힘을 설명하면서 정 교수는 "한 나라에서 문학이 발전하기 위한 토양으로 외세의 침략, 가난, 질병, 외세의 지배에 따른 도처의 감시자들, 그리고 절망에 있다"는 폴란드의 작가 마렉 플라스코의 말을 인용했다. 이러한 모든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문학에 힘을 불어넣는다는 말이다. 이 힘을 통해 문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결국 절망을 극복하게 만든다.

최 교수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학의 가치에 주목한다. "제게 있어 문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면서,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가보지 못한 나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보지 못한 풍경, 목격하지 않은 사건, 체험하지 못한 문화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 세상과 소통하는 법, 나아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최 교수는 한 젊은 독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는 일화를 덧붙였다. 최 교수가 번역한 「흑단 - 카푸시친스키의 아프리카 르포 에세이」를 읽고 그 독자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편지였다. "아프리카 태생도 아닌 폴란드의 기자가 쓴 르포를 읽고, 폴란드도 아프리카도 가본 적 없는 한반도의 한 20대 소녀가 눈물을 흘릴 만큼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 '문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되새긴다는 것…. 문학의 힘은, 문학의 가치는 이렇게 경이롭습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역사도 정서도 많이 닮아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 폴란드 크라쿠프의 아담 미츠키에비츠 동상.

〈정병권 교수 업적 및 주요 논문〉

1987년 우리학교에 폴란드어과를 설립하여 폴란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간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2004년에 십자훈장을 수상하였다.

- 마리아 돔브로프스카의 〈마을 결혼식〉에 나타난 폴란드 농촌의 모습, 동유럽발칸학 제 5권 2호 (2003, 12)
- 곰브로비츠의 〈트란스 아틸란틱〉에 나타난 "폴란드 민족성" 동유럽발칸학 제 6권 2호(2004, 12)
- 〈포촌텍〉의 유대인, 세계문학비교연구 vol.21 (2007, 12)
- 마렉 흐와스코의 〈제8요일〉에 나타난 폴란드 사회상, 동유럽발칸학 제 13권 1호 (2011, 6)
- 프루스의 소설 〈초소〉의 주인공 실리막 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 28호 (2011, 12)

〈최성은 교수 번역서 및 주요 논문〉

폴란드 문학 작품 번역 및 논문저술 활동을 하며 2012년 폴란드 문학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십자훈장을 수상하였다.

폴란드 문학 번역서로 《흑단-카푸시친스키의 아프리카 르포에세이》, 《헤로도토스와의 여행》 등이 있다. 한국 문학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을 폴란드어로 번역하였다.

-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와 노장사상의 상생적 유기론적 자연관, 동서비교문학저널 제 12호 (2005, 봄 · 여름)
- 폴란드 문학을 통해 살펴본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문학 속의 동양문화 열풍, 동유럽발칸학 제 4권 1호 (2002, 6)
- 폴란드 콜롬부스 세대와 윤동주의 저항시 비교 연구, 동유럽발칸학 제 4권 2호 (2002, 12)
- 폴란드 사회주의리얼리즘 시에 나타난 한국전쟁, 동유럽발칸연구 제 11권 2호 (2002,12)

외대학보
2013년 9월 9일 월요일 963호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최소영 기자

처음만 힘들지

"손을 잡는 거 처음만 힘들지 뽀뽀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같이 있잔 말 처음만 힘들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담부턴 왠지 어렵지 않아
처음이 중요해요 침착하세요"

마감 날 아침, 등굣길에 평소대로 지하철을 타고 엠피쓰리의 재생버튼을 눌렀다. 파일이 쌓이고 쌓여 1000개는 넘을 듯한 노래 중 한 곡이 랜덤으로 재생되는데 이번 곡은 공일오비의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래다. 미니홈피 배경음으로 설정할 만큼 중학교 때부터 즐겨 듣던 터라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무생각 없이 톡톡 튀는 멜로디에 매료됐는데 마감 날 듣는 '처음만 힘들지'는 예민한 내 감성을 간질인다. 수습교육을 처음 받던 날, 방중일정 동안의 힘들었던 기억이 뇌리를 스친다. '기자가 꿈이 아닌데…' 글쓰기 경험을 기르기 위해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국제학사 401호의 외대학보가 진정 내가 있을 공간인가에 대한 생각이 처음의 기억 위에 살포시 얹힌다. 그리고 학보의 많은 선배들이 해주신 '컴퓨터 검색으로만 찾을 수 없는 정보를 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자가 힘들어야 독자가 편하다'는 말들이 내 머릿속에 뒤얽히지만 결국은 자체 포맷으로 다시 백지상태가 된다.

'대학언론'이란 것에 개념이 하나도 없었던 수습기자는 이제 막 첫 취재 주를 겪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설렘'을 경험했고, 그를 위해 안산을 다녀왔다. 인터뷰 중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떨리던 느낌은 그저 조바심일 뿐이었다는 생각에 혼자 얼굴을 붉히는 신고식도 치렀다. 그리고 개강호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던 중 동기의 기사가 내려지는 어이없고 화나는 경험도 했다.

모든 일이든 처음이 힘들지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어렵지 않다고, 처음이 중요하니 침착하라는 노랫말은 이제 막 정기자를 시작하는 아마추어에게 프로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듯하다. 첫 취재 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취재원의 인사에서 느끼는 달콤함과, 처음으로 발로 뛰며 피땀으로 이뤄진 기사가 '누군가'에 의해 지면에 실릴 수 없음을 깨닫는 쓰라림이 다 프로로 가는 과정인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이별이란 건 항상 힘들지 겪어봤다고 쉬운 게 아니지
그 사람 잊긴 항상 힘들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때론 처음 아닌 일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일 만들지 마요 늘 아껴주세요"

처음 아닌 일도 겪을 때마다 힘들 수 있다며 늘 아껴주라는 마지막 노래가사를 흥얼거리며 기자로 뛰면서 학보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외대학보는 '자유언론 정론직필'임을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하며 학보의 기능을 다시 되새겨 본다.

글로벌배움터의 태동

직원의 말풍선

최태경 글로벌배움터 총괄지원팀장

유난히 장마 기간이 길고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서늘한 것으로 보아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학교가 다음 해부터는 양 배움터를 합쳐 대형대학으로의 통합운영은 구성원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주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배움터 학생 중에는 글로벌배움터를 재학 시절 중 단 한 번도 와 보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하기야 나도 재학 시절 글로벌배움터를 학과 MT때 한번 방문한 것 밖에 없으니 학생들의 정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양 배움터에 각각 4번씩 일하게 됐으니 이제 어느 정도 배움터에 대한 균형 감각은 가진 셈이다.

지난 3월 26일 우리학교 창립자 故 김흥배 이사장의 부인 이숙경 여사께서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는 날 우연의 일치인지 "설립자 동원 김흥배 박사 회고록"이 크게 다가와 읽어보게 됐다. 회고록은 2007년도에 출간 됐는데도 일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됐던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회고록 192페이지에 글로벌배움터가 탄생한 씨앗 생각이 있어 그대로 옮겨본다.

어느 가을 날 경기도 광주를 지나 용인으로 빠지는 길에서 잠시 차를 세웠다. 동쪽으로 시선을 옮기어 푸른 하늘을 쳐다보니 산봉우리가 보였다. 봉우리를 중심으로 날개처럼 두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산등성이가 동물의 부드러운 등허리처럼 순하게 뻗어 있었다. 나는 이상한 영감에 말려드는 듯하였다. 어림잡아 그 일대가 80만 평이 넘을 것 같았고 산세가 포근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여기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위의 생각이 현실화 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때가 10년 후 1979년 이라고 하니, 1970년 초부터 후반까지가 글로벌배움터 왕산의 태동 기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은 10개월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해 나오듯 글로벌배움터 왕산은 10년간의 태동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1980년 7월 캠퍼스 건설 기공식을 하고 1981년 2학기에 첫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3년 현재 글로벌배움터 건물은 1980년 초반과는 많이 늘었고, 운동장 위치에는 11층 규모의 신본관 건물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시사철 배움터를 가로 질러 힘차게 흐르는 맑은 개울, 학생회관 앞에 위치한 수정처럼 잔잔한 호수 명수당, 그리고 기숙사 앞 사거리 우리학교의 교훈인 진리, 평화, 창조로 통하는 관문인 정심대도(正心大道) 돌탑 등이 있다.

그나저나 글로벌배움터가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천하 명당으로, 음기가 강해 정심대도 탑으로 눌러 놓았고, 또한 왕(旺)산 그 말대로 이곳에서 수학하는 학생들 중에 대통령이 네 사람이나 나온다고 누군가(?) 예언했다는데 언제쯤 누가 출마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일시정지

"핵, 차버릴거야"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68주년을 맞아 '푸른하늘 공동행동'이 "핵에는 인격이 없다"는 슬로건으로 반핵, 탈핵을 외쳤다. 후쿠시마 문제에서 보듯 핵 에너지는 용도를 막론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위험하므로,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일 (사회.언정 07)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13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십니다.

▶활동내역 2013년 2학기 외대학보 963~968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총 6회, 개인 당 2회)
▶모집단위 글로벌배움터 3명 / 서울배움터 3명
▶모집기간 9월 16일(월)까지
▶지원방법 학교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 또는 학보사에서 지원서 수령 후 학보사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글로벌배움터 87kennedy0412@hufs.ac.kr
서울배움터 87curious@hufs.ac.kr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외대 구성원
▶활동혜택 ①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②외대학보 독자위원 수료증 지급
③기념품 지급
▶문의 글로벌배움터 허규범 기자 010-9143-0612
서울배움터 임수진 기자 010-4257-9732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빈 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소통

▲2012년 1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학교는 본분교 통합이 각종 언론매체나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 학교는 본분교 통합에 대해 학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그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본분교 통합에 대해 미처 입장정리를 하지도 못한 학생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았고 급기야는 학생의 여론이 분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지난 여름방학, 학교와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본분교 통합에 따른 캠퍼스 간 이중전공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논의를 진행하던 중, 양 배움터 총학생회의 입장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캠퍼스 간 이중전공에 제한학과 설정과 관련해 서로의 주장이 달랐던 것이다. 학교에서 제시한 안은 학사과정이 비슷한 서울배움터의 어문학과와 글로벌배움터의 통번역학과 · 지역학과에 한한 제한학과 설정이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 안에 동의했지만,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는 이 안에 반대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어문학과와 통번역학과 · 지역학과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한 만큼 제한학과를 설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학생의 여론은 다시 분열되고 말았다.

▲학생의 여론이 분열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학기 LD학부를 신설하면서 자유전공학부 폐지를 논의할 때도 논의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갈라졌다. 노천극장 철거공사도 마찬가지였다. 학교가 합의안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지만 학생들은 '합의안과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과 '합의안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학생의 여론이 나뉜 것을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통일된 의견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사전에 학교가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안을 늦게 전달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안을 상대적으로 늦게, 그리고 부족하게 전달받은 학생들은 넉넉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논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결국 제시간에 통일된 의견을 내보내지 못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논의하는 동안 학교는 자신의 안대로 일을 진행한다. 지금 논의 중인 LD학부 학사과정이나 광역화 모집도 마찬가지다. 현재 학생들은 논의과정에서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 논의 중인 사안들도 이전 사안들과 같이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에서 사안을 결정할 때는 3주체인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됐거나 논의 중인 사안에서 학생의 의견은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통일된 의견을 받기 위해 학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 자유전공학부 폐지의 사례처럼 더 이상 정보 전달이나 소통의 문제로 피해를 보는 학교 구성원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

만 평

최소영 ①

사설

우리학교, 이번 가을 새로운 도약 내딛는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는 이번 여름 대대적인 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저 멀리 외대앞역부터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학교를 맞이하는 넓어진 정문부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사이버관, 노천극장을 허물고 들어선 잔디광장, 내부적으로는 사회과학관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방중동안 캠퍼스의 모습을 보지 못한 학생들은 혹시 이번 개강 후 마치 다른 학교를 다니는 듯한 '황홀함' 에 빠져들진 않을지. 글로벌배움터에도 현재 신본관이 공사 진행 중이고, 항상 총학생회 선거마다 '말 많던' 교내 셔틀버스 2대가 새로 바뀐다. 더불어 방치됐던 구기숙사 또한 공사가 확정됐다.

이처럼 우리학교는 그 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일궜다. 2012년에는 양 배움터를 통합해 '대형대학' 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지난 행적들만을 곱씹으며 안주할 수 없다. '대형대학' 으로서의 위상과 구성원간의 단합, 소통을 더욱 단단히 해야할 것이다.

새로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미 도약할 준비를 끝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학교의 발전과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관심이 바탕된다면 학교의 발전은 저절로 뒤따른다. 우리학교를 위한 어떤 새로운 행보가 있을지 벌써부터 설렌다.

총학생회의 애너크로니즘

2011년 6월 10일 본지 940호는 노천극장 철거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기획 기사로 다루었다. 도서관 바로 앞에 위치한 노천극장은 평소 동아리 연습과 공연 등으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었고, 이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노천극장 철거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총학은 집회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천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11년 당시 6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40% 정도의 학생들이 노천극장 철거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천극장 철거 문제는 그 후로도 1년 이상 학교 측과 총학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남았는데, 2012년 가을 2,907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는 83%의 학생들이 노천극장 철거를 지지했다. 설문조사는 시기와 방법 및 참여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설문 조사 결과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드러난다. 바로 학생 대다수가 조용한 도서관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은 철거된 노천극장 자리에 간이무대를 포함하는 집회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학생 대다수가 원하는 조용한 도서관은 안중에 없고,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공간 확보에만 매달리고 있다. 학생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총학이 학생 대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측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총학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총회 등의 행사가 성원 부족으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 때문인데, 이를 두고 무조건 요즘 학생들의 개인주의를 비판하기 보다는 변화한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여론 조성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80년대는 도서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공부 대신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정의' 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으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도서관 바로 앞 집회 공간 확보에 매달리는 총학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애너크로니즘(anachronism, 시대착오)이다. 총학은 정치적 명분보다 학생 대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둘기 칠판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87kennedy0412@hufs.ac.kr

서울배움터 일본학부 201302412 수민이에게

안녕 수민? 나는 수민이야! 지금쯤 학부도, 성도, 이름도 모두 같은 우리 둘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는 오그라드는 상황쯤으로 착각할지도 모르지! 수업 시간 출석을 부를 때 함께 손을 들고 대답할 때마다 곤혹스러워하는 교수들의 표정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당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 이번 비둘기칠판의 주인공인 두 이수민 양

눈 깜짝할 사이에 한학기와 방학이 끝나버렸네. 계획했던 여행을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우리가 놀러 다닌 곳을 떠올려보면 모두 즐거운 기억뿐이야. 우리 중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신나는 일을 꾸민 건 너였던 것 같아. 고마워! 틈틈이 일본어 레슨해준 것도. 사실 미리배움터 날에 널 처음 봤을 때는 도도한 느낌이라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털털하고 유쾌한 아이일 줄 몰랐어. 역시 사람은 겪고 지내봐야 아는 건가봐.

방학동안 해둔 일이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개강을 기다리고 있어. 학창시절 처럼 차라리 정신없이 방학숙제나 하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대학에서 처음 맞는 방학이니까"라는 핑계로 이번은 넘어가보려고. 1학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2학기를 보내기를 바라며 이만 줄일게!

201302414 수민이가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 일시정지(사진) / 비둘기 칠판(3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 · 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 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 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신민지 | **부 장** 양재상 이은결
정기자 이영호 임수진 최소영 허규범
조 교 정진경 지윤주
제 작 경보미디어 | **인 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외대학보
2013년 9월 9일 월요일 963호

"이제야 비로소 저는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 이정열과의 유쾌한 대화

이정열 (스와힐리어 87)

▲ 배우 이정열이 안산 예술의 전당 로비에서 미니콘서트를 열고있다.

뮤지컬 〈그날들〉이 공연 중인 극장로비에서 기타와 함께 감미로운 선율의 노래가 흐른다. 노랫소리를 따라 간 자리에는 배우 이정열이 故김광석의 노래를 열창하고 있었다. 우연히 시작한 미니콘서트가 관객들의 열광에 이제는 공연 시작 전 꽤 큰 행사가 됐다며 멋쩍게 웃는 그의 모습에 관객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위암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항암치료 중이지만 배우 이정열의 얼굴에는 '아픔'보다 '여유로움'이 보인다.

Q. 졸업 후 92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노래에 관심이 많았나요?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할 정도였죠. 그런 의미에서 외대입학은 인생의 결정적 한 수 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우연히 노래모임을 만났는데, 그 동아리가 '해무리' 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그날 바로 해무리에 가입했고 선배들과 3일 밤낮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인 제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죠.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때에 만난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준 덕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이란 건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지금 제모습과 많이 다르겠죠. 대학교 4학년 때는 총학생회 문화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의 소개로 사회단체를 알게 됐고 그러다 동요를 비롯해 통일이나 핵문제 등 사회문제를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노래마을'이라는 모임에 들게 됐어요. 그렇게 대학시절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죠.

Q.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스와힐리어를 전공했는데 어떤 계기로 뮤지컬이란 장르에 발을 들여 놓은 건가요?

사실 저도 왜 배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웃음) 배우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제가 가수에서 뮤지컬배우가 되기까지의 삶은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일 뿐이에요. 학교 선배들의 추천으로 포크모임에 가입했고, 인정을 받아 정식 가수로 데뷔하게 됐어요. 그 후 1994년 가극 '금강'으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금강'은 신동엽 시인의 작품 '금강'을 바탕으로 만든 가극인데 정통 성악을 공부한 오페라 가수들 사이에서 대중가수인 제가 매우 튀는 존재였죠. '금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침이슬'의 작곡가이자 가수, 뮤지컬 제작자인 김민기의 눈에 들어 1995년에 뮤지컬 '개똥이'에 캐스팅됩니다. '노래마을'에 있다가 자리를 옮겨 합류한 곳이 지금의 다음기획입니다. 여하튼 이곳에서 정태춘, 권진원, 신인으로는 이정열. 이렇게 세 명이 음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오디션을 보러 온 친구 중에 윤도현이 있었고요. 김민기의 극단 '학전'이 야심차게 제작한 '개똥이'에 저와 윤도현이 나란히 캐스팅됩니다.

1996년 가수로 먼저 데뷔한 그가 처음 연기를 시작한 작품은 창작 뮤지컬 〈개똥이〉였다. 그 작품은 〈지하철 1호선〉 초연을 성공적으로 끝낸 학전이 10년간 준비한 작품이다. 그 뒤로 가수의 경험을 살려 〈행진! 와이키키 브라더스〉, 〈하드락 카페〉등을 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이었을 뿐 자신이 진짜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뮤지컬 작품<개똥이>를 할 때는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그 후 한동안 뮤지컬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생계를 유지하기 너무 벅찼고 솔로가수로 노래하고 싶은 욕심도 컸거든요. 또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활성화 돼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첫 작품 때 알게 된 제작자 최무열씨의 출연 부탁으로 다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작품이 <와이키키 브라더스>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뮤지컬 인생이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공연을 하게 된 건 작품 <아이다> 이후인 것 같네요.

'배우 이정열'이란 호칭이 아직 낯간지러웠던 시절, 그에게 진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안겨준 작품은 〈아이다〉였다. 〈아이다〉가 국내에 처음으로 올라왔던 2006년 초연 배우로 알려진 그의 〈아이다〉 입성기는 꽤나 파란만장했다. 〈아이다〉에 커버 캐스트로 캐스팅 된 그는 8개월 동안 무대에 서지 못했다. 백스테이지에서 오늘은 무대에 설까, 내일은 무대에 설까, 초조한 기다림을 보내다가 서울 공연이 끝났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배우로서의 모습을 갖춰갔다.

<아이다> 초연 전까지는 뮤지컬 배우라는 말이 어색했어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죠. 그때까진 가수 이정열 내지는 '음악하는 놈' 이정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이다>의 초연 멤버로 작품 활동을 한 이후 스스로 작품을 찾아다니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어느 순간 가수 이정열이 아닌 배우 이정열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배우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웃음)

> "무대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나를 버리고 작품의 '그'가 되어야 하는 거죠"

Q. 〈아이다〉를 비롯해 〈미스사이공〉, 〈넥스트 투 노멀〉, 〈그날들〉 등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아이다〉에서는 허준호씨의 조세르역 커버 배우라고 들었어요. 어떤 배역을 연기 할 때 마다 가지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나요?

무대 위든 무대 밑에 있든 배우는 배우에요. 역할이란 건 배우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배우를 고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대에는 내가 아니라 그 작품의 캐릭터가 올라야하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나를 버리고 그 작품의 '그'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배우가 작품을 고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배우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와요. '너는 이것을 하여라…' 하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Q. 작년 12월 경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삶의 경계를 오가면서 삶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연기하는 데 달라진 점은 없나요?

저는 정말 욕심꾸러기였죠.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계속 부추겼어요. 좋게 본다면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자학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 병을 키운 듯합니다. 위암 투병 후 오히려 저 자신에게 관대해 진 것 같습니다. 금연 금주도 하게 됐고요. 마음이 편안해 졌어요.

연기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대가(大家)들은 겸손해요. 일을 대충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는 완벽하죠. 연기를 하는 데에 좀 더 여유롭고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유유자적, 자유자재' 인거죠.

Q. 선배님은 배우활동 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으신 듯합니다.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2012년에는 '대한민국을 노래하다'라는 프로젝트에 참가해 용산참사와 관련된 '가혹하고 이기적인'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최근 국정원 게이트 버스킹(KGB)에 음악인으로서 공연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건 대학생활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많은 선배들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청춘을 불태우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 줬어요. 몇몇 분들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옳은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행동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들이 우리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애국'이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하려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Q. 뮤지컬〈그날들〉이 끝나면 시골에 가서 쉬고 싶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계속 뮤지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서울 공연 끝나자마자 쉴 계획이었는데, 가까운 한 연출자가 '보니 앤 클라이드' 공연을 부탁해 10월 말까지 공연하게 됐네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데 참여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이 배우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뮤지컬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제 삶의 신조가 '재미있게 놀자' 인데, 사람은 놀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이 저에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론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껴 명지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에서 뮤지컬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대학원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을 지도해보고 싶기도 해요. 먼저 뮤지컬에 대한 학술적인 면에서의 갈증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끝난 후에도 이정열 배우는 열정적으로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는 일반인들이 뮤지컬 배우를 '딴따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뮤지컬계에서는 배우를 '플레이어'라고 부른다며 미소 지었다. 십년이상 뮤지컬계에 있어보니 이제야 배우 같단다. 앞으로도 이름만큼이나 정열적인 모습으로 빛나는 멋진 배우가 되길 바라며 공연장 뒷문을 통해 걸어 나왔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